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젠더' 주제 학술대회

부처님도 성 변화된 출가자 인정

2001년, 연예인 하리수씨가 처음 방송에 데뷔했을 때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담론'으로 떠들썩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성'이나 '여성'을 부여받고, 그 성(性)은 평생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성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 사이 하리수씨는 주민등록상 '여성'이라는 법적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5월 19일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등 '자신이 추구했던 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아직 배타적이기만 하다. 불교에서는 성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불교와 젠더(Gender)'를 주제로 5월 11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200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옥선 교수(순천대)는 '불교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초기불교 율장에 나타나는 트랜스젠더 사례와 대승불교의 '변성(變性)' 개념을 통해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의 입장을 살펴봤다.

안 교수는 우선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정의했다. 흔

히 '수술에 의해 성을 전환한 혹은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안 교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생물학적 성을 전환한 사람을 일컫는 정확한 용어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며 "이 보다 상위 개념인 트랜스젠더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스테어날 때부터 자웅동주의 양성적인 사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출생 시 주어진 성을 바꾸거나 바꿀 사람 △남자로서 여장을 하거나 여자

“부처님, 자연스럽게 수용 합당한 조치 취해”

성전환수술은 자아정체감 확보의 문제

서 남장을 하는 사람 등이 모두 트랜스젠더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경전 속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

초기경전 율장에는 여성 성징(性徵)이 나타나는 비구와 남성 성징이 나타나는 비구니의 예가 나타난다. 부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반대의 성징이 출현한 출가자에 대해, 여성 성징이 나타난 비구에게는 비구의 계를 따르도록 하고, 남성 성징이 나타난 비구니에게

는 비구의 계를 따르도록 했다. 안 교수는 "부처님은 성전환을 병적인 현상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변성' 혹은 '전성(轉性)'의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안 교수는 "우리의 몸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라는 변성 개념에 대해 "변성에 대한 이중적 입장은 이에 대한 무집착의 메시지로 읽혀진다"며 "또한 이는 변성에 대한 적극적 독려나 금지보다는 변성행위 자체에 대한 무집착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 교수는 불교적 입장에서 '성전환 수술은 부당·불가하다'고 말한 근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의 성별변경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성전환수술은 단순한 성지향성이나 성정체성의 표현이기 이전에 자아정체감 확보와 자기긍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안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성별 사이의 괴리로 인한 트랜스젠더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불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번뇌'는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꾸는 밝은 사람들(소장 박찬욱, 이하 밝은사람들)은 5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와 상담-괴로움의 뿌리인 번뇌, 무엇이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제3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가 '초기·부파불교'를,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중관·유식불교'를 강의 교수(위덕대)가 '밀교'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지창구 교수(동국대)가 '천태·화엄불교'를, 월암 스님(백승선원장)이 '선불교'의 입장에서 불교와 상담의 접점을 살펴본다.

여수령 기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열려

차계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5월 19-20일 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초의선사 탄생 22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례교육관 준공식과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실내와 연주의 대금, 국악공연이 아우러지는 '초의와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와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20일에는 초의선사 헌다의식과 어린이 행다 시연, 차문화 관련 도서 전시회, 초의차 제다법 시연 및 체험, 초의선사 케블 봉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동다송비' 제막식과 금오초당 준공식도 함께 열린다. (061)285-0303

여수령 기자

“일제강점기 불교정화 중심 인물”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세미나

“동산 스님은 현대불교사의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일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교정화의 중심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불교계의 변화와 모순의 흐름을 그 당시 불교정화운동의 주역과 활동과 함께 살펴보는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동산문도회와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5월 8일 범어사 설립전에서 개최한 제1회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학술세미나'에서 '동산의 불교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동산 스님이 입적한지 40여년이 지났고 불교정화운동의 최고지도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조계종단의 불교정화운동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1912-26년까지의 동산 스님 행적과 수행을 살펴보고, 일제하에서 불교정화운동에 가담한 1935년 이후의 행적을 구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동산 스님의 일제하의 불교정화 활동에 대해 "1935년 수좌대회와 1941년 유교법회에서의 선종창건, 중무원 설립, 선종진흥, 계승수호, 전통불교 수호의 견인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성미 기자

조선왕실의례 반환 요청

일에 환수 요구 민사조정신청서 제출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남·철안·김원웅)는 5월 8일 11시 서울 중앙지법에 일본 공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례'의 환수를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사진).

환수위원회는 일본 왕실과 일본 정부를 피신청인으로 한 민사조정신청서에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례'를 비롯한 72종의 왕실의례 반환을 요청했다. 환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민족의 열

망을 담아 '조선왕실의례'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고자 한다"며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를 넘어 민간 차원의 청구권이 살아 있음을 공표하는 일이며, 일본 정부에 약탈문화재 반환의 역사적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왕실의례는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 신청돼 있는 상태다. 이 의례는 오대산과 태백산 등의 사도(四道)에 보관되어 오다, 일본 침략기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에 기증함에 따라 도쿄 일왕궁(日王宮)으로 옮겨졌다.

2006년 일본 도쿄대가 소장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환수 운동을 주도한 환수위원회는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선왕실의례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청규’ 정의 내려야”

적멸 스님, 대각사상심 세미나서 주장

제반 규정 사이 상관성 등 호호

통상적으로 선원의 규약·규칙 등을 일컫는 용어인 '청규(淸規)'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

적멸 스님(현불사 주지)은 5월 4일 서울 법안정사 관음전에서 열린 대각사상심 연구 학술세미나 '백운성 스님과 한국불교의 계율'에서 '근현대 한국선종교단에서 제정된 청규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스님은 "청규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없다"며 "청규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고 그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용성선사의 결사회 규칙, 한암선사의 선문규제, 성철선사의 공주규약 그리고 오늘날 조계종 5대 총림이 제정한 여러 규정을 살핀 후 "이 모두를 일괄적으로 청규라고 부르는데, 언제 누가 무슨 이유로 청규라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

적했다. 이어 스님은 "중구 선종교단의 청규는 백장의 청규를 말하는 것이고, 이후 제정된 청규서도 근근 사상이나 체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근현대의 제반 규정은 무엇을 청규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청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도음악 들으며 템플스테이

해남 미항사(주지 김강)는 5월 26-27일 '인도음악과 함께하는 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인도 타고르 예술단 '마무리(MADHURI)'를 초청해 타고르의 시와 노래, 춤 등의 인도음악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미항사 창건설화와 견기명상, 산행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참가신청은 5월 24일까지이며,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일반인 5만원, 학생 3만원. (061)533-3521 김원우 기자

봉은사, 부부 주제로 강좌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가 5월 11일부터 5회에 걸쳐 '부부'를 주제로 참살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부가 함께 참가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부부갈등' '성(性)' '대화' '기 살리기' 등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가정 꾸리는 법을 배워본다.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과 이근후 열린마음클리닉 원장, 이서원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6월 23-24일에는 봉은사에서 '의사소통과 대화법'을 주제로 수련회도 개최한다. 선착순 20명 모집. 참가비 5만원. (02)3218-4728

관음사, 트로트 음악회 개최

부처님오신날,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에는 흥겨운 트로트가 울려 퍼진다. 1000여 명의 불자와 주인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인 '관음사 트로트 산사음악회'는 올해로 3회를 맞는다. 관음사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

사는 개그맨 엄경환씨가 사회를 맡고 현진우 최유나 진오근씨 등이 초대가수로 참여한다. 어린이 벨리댄스 시범단의 공연도 펼쳐진다. 현진 스님은 "가장 서민적인 무대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트로트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7-24일에는 관음사 천불전에서 50여 점의 연꽃 사진전도 열린다.(043)256-6254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네팔무용단 초청 경료잔치

육천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과 함께 네팔 국립 민속무용단 초청공연 및 경료잔치를 개최한다.

오전 11시 열리는 1부 행사에서는 용암사 제10회 경료잔치가 육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고, 저녁 6시 30분에는 네팔국립민속무용단 공연 및 대성사(주지 혜철)의 네팔 문화교류 증서 교환이 진행된다. 이어 봉축 법요식과 시내 제등행렬 등도 펼쳐진다.(043)732-5560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부종정) 석정관
원로원장 석화담

호법원장 대원	의전원장 원담	원로 법령 원로 율타
교육원장 구진	포교원장 보광	원로 무승 원로 도원
연수원장 도명	총무원장 도법	원로 해암 원로 일우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무초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성훈
비구니부장	혜광
- 각 부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도명
연수국장	지우
사서국장	성덕
비구니국장	영암
부산포교국장	용정
충남포교국장	법정
- 각시도 총무원장

경기총무원장	지공
경북총무원장	태룡
제주총무원장	의공
경남총무원장	청강
충남아산총무원장	수암
대구시총무원장	성진
대전광역시총무원장	해각
충북영동총무원	선학
- 수행국장 보각
- 수행특보 덕우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도일동

●총무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66-7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한국생활불교조계종법사단총무원

경남법사승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충남법사승 종무원장	명보 대법사

중앙포교국장 보현	중앙총무국장 원명
서울경기국장 자운	대구포교국장 송정

종무원 국장 혜명
종무원 국장 수혜

- 부산지부총무소

지국장	혜성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총무소

지국장	성각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총무소

지국장	덕경
강원지부	033)553-6653
- 경남창녕지부총무소

지국장	법성
창녕지부	055)532-7070

◆마산사무실: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 2층 대표전화 055)224-1769
 ◆울산사무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대표전화 052)251-7748
 ◆충남사무실: 충남 서산시 팔봉동 금하리 1061 대표전화 041)664-2296